

우연의 무재해 현장이 아닌 필연적인 무재해 현장, 삼성건설

삼성건설 해청 1재건축아파트 현장

병술년 새로운 바람이 동해바다 푸른 파도를 가르고 찬란한 빛을 발한다. 하얀 백사장 위에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새해라 기쁨이 두배요, 펼쳐지는 풍경도 더욱 아름답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며, 지켜주고 싶은 것이 가족인지라 느껴지는 것이 두 배인가 보다.



늘 찾은 삼성건설 해청 1재건축아파트현장(이환진 현장소장) 사람들도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먼저 베풀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 생활화 되어있다.

협소하다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강남지역 최고의 아파트, 레미안이 탄생하기 위해 안전을 필두로 함께 무재해 준공을 꾸려나가는 이곳의 안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안전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

건설경력 20년째인 이환진 소장은 이 곳 재건축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첫 입문하는 현장이다. 뿐만 아니라 팀장들 대부분이 팀장으로 첫 입문하는 이가 대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열의는 그 어떤 현장보다 뜨거우며 이러한 곳에 안전은 최우선이다.

처음엔 첫 입문 현장이라는 부담감에서 고품질 무사고에 대한 중압감까지 겹치며 커다란 심적 부담에서 시작했으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여기고 여기서 현장의 안전을 찾으므로써 직원과 현장 식구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고, 지금은 고품질 무재해 준공을 자신하고 있다.

삼성건설은 현장 모든 근로자에게 IC카드를 지급하는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뢰와 믿음은 온라인 네트워크가 아닌 인적 네트워크에



▲ 이 환 진 현장소장

서 왔다.

상호교류를 이끌어 자율적인 현장관리를 유도하고, 융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장 식구들을 가족화 하는데 역점을 두는 인적네트워크는 협력사와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협력사 소장단으로 구성된 자율안전 점검단원들 상호간의 인화를 통해 관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상호간에도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이 그렇다.

여기에 평소 이환진 소장의 어울리기 좋아하고 협력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 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는 매개체로 삼으면서 더욱 현장이 밝아지고 있다.

위험요인 Zero화 현장 ■■■

집을 짓는 것이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안전은 집을 짓는 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안전에 대표적인 것이 OHSMS이다. 일본 대상건설과 업무 제휴를 통해 도입된 본 시스템을 삼성건설에 맞도록 제 구성한 것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Zero보다 재해 발생 분위기를 조성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요인 Zero화를 추구한다.

여기에는 공정 및 작업순서별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각 파트 담당자들의 협의를 통해 대책이 강구되는 작업지도서가 있고, 자율점검단에서 운영하는 Patrol, 명을 주요 관리 Point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Plan-Do-Check-Action” 활동으로 체계화하여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반복적인 확인과 실천으로 무재해로 이어 나간다.

맺음 말 ■■■

품질이 기술자의 자존심이라면 안전은 기술자 자신이라는 것이 이 곳 사람들이 안전





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매일 2회 이상 디지털장비와 함께 이환진 소장이 단독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술선수범하는 모습에서 모든 직원들은 ‘안전은 본인 자신’에서부터 출발된다.

연장을 들고 작업을 하는 현장 근로자들 입장에서 모든 것이 생각되어지고 추진되는 해청 1재건축아파트 현장에는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안전으로 우연에 의한 무재해 현장이 아닌 필연적인 무재해 현장이 되기 위해 무재해 준공을 향한다. 아울러 삼성건설 해청 1재건축아파트현장 식구들은 병술년 한해 대한민국 전 현장의 무재해를 함께 기원한다. 

〈 최중덕 기자 〉